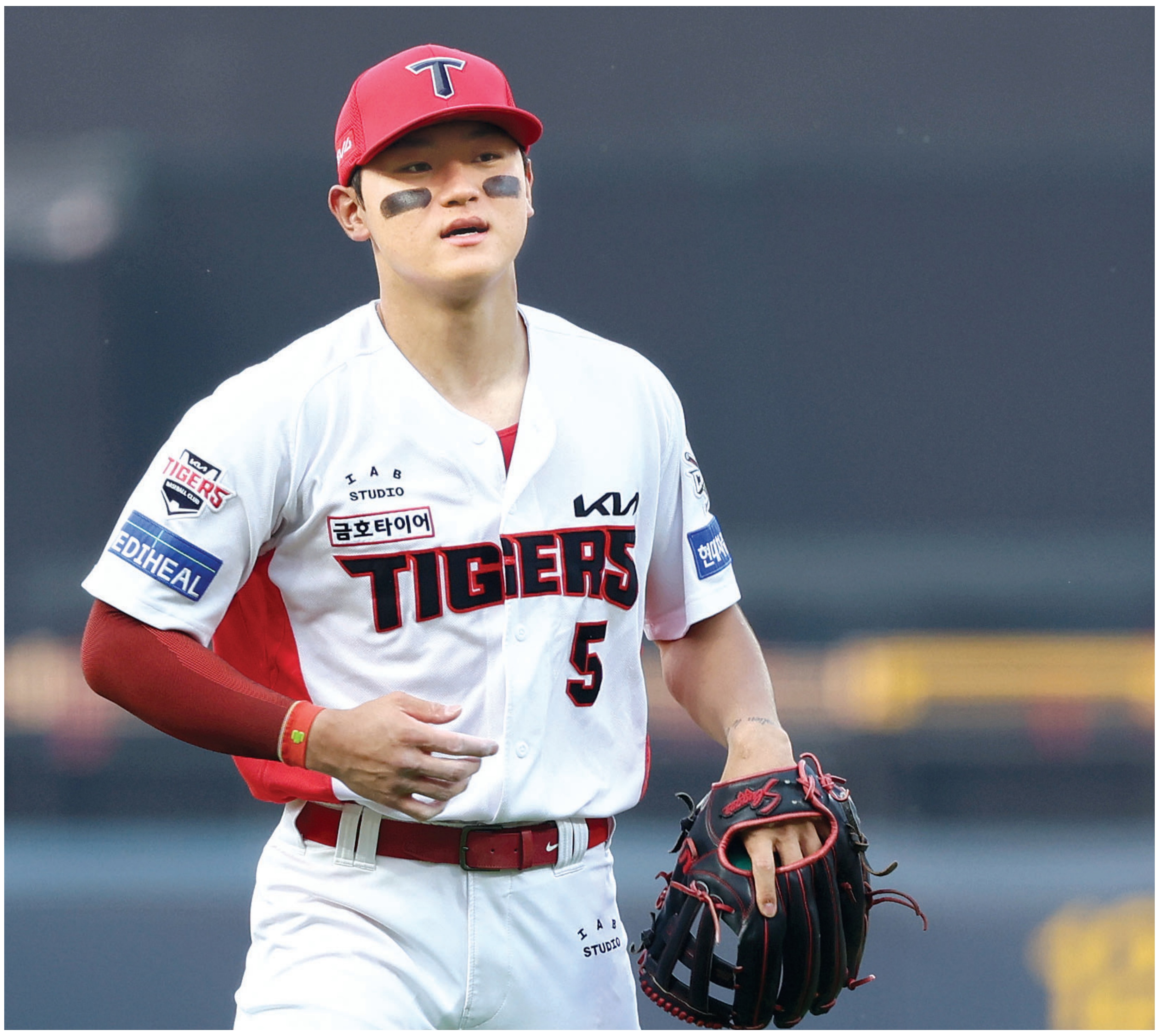
김도영, 또 햄스트링 부상… 복귀, 이번엔 더 오래 걸린다

27일 KIA-키움전서 도루중 재발…근육 손상 '그레이드 2' 소견

나성범·위즈덤·김선빈 부재 속 이범호 감독 "젊은 선수들과 최선"



KIA 타이거즈의 '부상 악몽'이 계속되고 있다. 타선의 핵심 김도영<사진>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또다시 이탈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7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7-5 승리를 거뒀다. 최형우가 18시즌 연속 10홈런으로 2500안타 기록까지 작성한 이날, 이범호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웃지 못했다.

KIA는 0-2로 뒤진 5회말 2사 3루에서 나온 김도영의 적시타로 추격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최형우가 키움 선발 하영민의 4구째 133㎞ 포크볼을 중앙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하지만 최형우의 홈런에 앞서 아쉬운 부상 장면이 있었다. 적시타를 치고 출루했던 김도영이 2루 도루를 시도해 세이프 판정을 받은 뒤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른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한 김도영은 대주자 김규성으로 교체됐고, 구단 지정병원인 선한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햄스트링 손상 진단을 받았다. KIA는 28일 교차 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결과는 '우측 햄스트링 손상'이었다. 그리고 앞선 부상 보다는 상태가 더 안 좋았다.

김도영은 지난 3월 22일 NC 다이노스와의 2025시즌 개막전에서도 안타를 친 뒤 1루 베이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좌측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당시에는 근육 손상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그레이드1'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이번에는 '그레이드 2'라는 소견이 나오면서 앞선 부상보다 복귀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3월 22일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김도영은 4월 25일 그라운드로 돌아왔었다. 당시에도 실전 재개를 앞두고 '부상 부위가 완벽하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복귀가 늦춰졌었다.

김도영은 지난 주말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달리기'에도 시동을 걸어 24일 삼성전에서 2개의 도루로 기록했었다.

하지만 김도영은 시즌 3호 도루에 성공한 뒤 다시 부상병이 됐다.

매주 부상 이탈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KIA는 현재도 나성범(종아리), 위즈덤(허리), 김선빈(종아리)이 빠진 채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 해결사 김도영이 다시 빠지게 되면서 답답한 시즌이 계속되고 있다.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도 허탈한 부상이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 시작과 함께 부상이 있었던 만큼 김도영의 질주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이야기했었다. 다시 또 주루과정에서 부상이 나왔지만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의 승리를 위한 간절한 질주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다.

이범호 감독은 28일 키움전에 앞서 "(전날) 걸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다. 앞선 부상 때는 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래 걸렸다. 지금은 손상이 있어서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대한 안 뛰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노력도 하지만 순간 팀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도루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팀이 1점 끌려가고 있고, 형우가 안타 쳐주면 동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다. 자신이 뛰어서 팀이 이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발생한 것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팀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알면서도 김도영의 부재는 크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은 다른 선수가 돼 줄 수 없다. 열심히 플레이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도루 하나에 영향이 크다.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다.

이범호 감독은 '현재'에 집중해 위기를 타파할 생각이다.

이범호 감독은 "있는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해줘야 한다. 부상 선수 돌아오는 시점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있는 선수들도 이길 수 있는 경기하면서 이겨나가야 한다"며 "젊은 선수들과 즐겁게 해보겠다. 지금 있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초신성' 라민 야말, 바르사와 6년 더

라리가 최연소 선발·득점 '차세대 메시'…2031년까지 계약 연장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이후 최고의 재능'으로 불리는 '초신성' 라민 야말<사진>이 17세에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와 장기 재계약했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28일 "야말과 2031년 6월 30일까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의 기존 계약 기간은 내년까지다.

7세부터 바르셀로나 라마시아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워 이미 구단과 10년 인연을 이어온 야말은 당분간 계속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활약하게 됐다.

아프리카계로 스페인에서 태어난 야말은 일찌감치 잠재력을 뽐내며 메시의 뒤를 잇는 선수로 평가받아왔다.

메시 역시 라마시아를 거쳐 바르셀로나에서 프로에 데뷔하고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타로 우뚝 섰다.

기대에 걸맞게 야말은 각종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며 성인 무대에 안착했다.

2022-2023시즌 막바지이던 2023년 4월 바르셀로나 구단 역사상 최연소 기록인 15세 290일에 프리메라리가(라리가) 경기에 출전해 1군 데뷔한 그는 2023-2024시즌부터 주전급으로 뛰었다.

라리가 최연소 선발 출전(16세 38일)과 득점(16세 87일) 기록을 새로 썼다.

최근 막을 내린 2024-2025시즌엔 라리가 35경기 9골을 포함해 공식전 55경기에서 18골을 터뜨리며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국왕컵(코파 델 레이), 스페인 슈퍼컵에서 정상에 오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야말은 이미 바르셀로나 1군 공식전 106경기에 출전했고, 25골 34도움을 작성했다.

2023년부터 스페인 성인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그는 스페인 최연소 A매치 출전과 득점(16세 57일), 유로(유럽축구선수권대회) 최연소 출전(16세 338일) 기록도 작성했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야말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팀의 여러 중요한 승리에서 주역으로 활약했다"면서 "그는 적어도 2031년까지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더 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유럽 첫 시즌 마친 엄지성 "그리운 광주 왔어요"

광주FC 출신 英 스완지 시티 소속
리그 3골 2도움·리그컵 1도움 기록
챔필 찾아 첫 야구 경기 관람

잉글랜드 챔피언십 스완지시티의 엄지성이 지난 27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KIA와 키움전을 관람했다.

새로운 도전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온 스완지 시티의 엄지성이 광주에서 기분 좋은 휴가를 보내고 있다.

엄지성은 지난 5일 홈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챔피언십 46라운드 옥스퍼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끝으로 유럽 무대 진출 첫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 경기에서 전반 23분 선제골을 장식한 엄지성은 3골 3도움(리그 3골 2도움·리그컵 1도움)의 기록을 남기고 기분 좋은 귀국길에 올랐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9·10차전 국가대표 명단 발표를 앞두고 몸을 준비했던 엄지성은 '휴식기 경기력'을 이유로 대표팀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휴가를 보내게 됐다.

지난 11일 광주FC와 전북현대의 경기가 열린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광주팬들을 만났던 엄지성은 27일에는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광주일보 인터뷰를 통해 맺어진 이의리와의 인연으로 야구장을 찾은 그는 KIA와 키움의 경기를 지켜봤다.

엄지성은 "처음으로 야구장을 찾았다. 정말 재미있게 경기를 봤다. 응원이라던가 경기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또 야구장에 와야겠다"며 웃었다.

엄지성이 귀국 후 하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일상생활'이었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사소한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던 지난 1년이었다.

"귀국 후 5일 정도 쉬고 대표팀 발표가 남아있어서 계속 몸을 만들었는데 소식을 듣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기로 했다"며 "시즌이 안 끝나는 줄 알았다(웃음). 초반에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도 있어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 힘든 순간을 이겨내니까 좋은 순간이 왔다. 버텼기 때문에 좋은 순간이 와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초반 적응의 시간도 필요했고, 기다렸던 골도 늦게 터졌던 만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었다.

엄지성은 "언어가 안 되니까 선수들하고 친해지기 쉽지 않았다. 통역 친구가 오고 나서 선수들이 와서 장난도 치고 관계가 좋아졌던 것 같다"며 "또 리그 스타일이 다르다. 피지컬, 스피드, 추구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초반 적응에 애를 먹었다. 이정효 감독님 밑에서 디테일하게 배우다가 내 힘으로 상대하려니까 어려움을 느꼈다. 기량이랑 피지컬이 월등해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약이었다. 실패하고 시도하고 부딪혀보니까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슈팅 크로스에서 그런 상황들이 나온 것 같다"고 도전의 시즌을 돌아봤다.

광주를 그리워하면서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영국의 뜨거운 축구 열기는 엄지성을 뛰게 한 힘이었다.

엄지성은 "팬들의 함성, 경기 분위기가 동기 부여가 된다. 계속 경험하고 싶다. 내가 골 넣을 때 함성을 잊지 못한다. 이곳 팬들은 경기를 지면 1주일이 불행하다고 한다.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축구를 대해서 더 책임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부담도 있었고 초반에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버티니까 좋은 순간이 왔다. 다른 이런 상황, 시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시간이 덜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먼 타국에서 오로지 축구에 집중하다 돌아온 엄지성은 고향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뒤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에 오니까 다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도 들었다. 축구는 영국에서 하고 생활은 여기에서 하고 싶다"며 웃은 엄지성은 "6월 30일 프리시즌 시작이라 그것에 맞춰서 몸 준비하고 복귀할 계획이다. 일단 축구 생각 안 하고 일상을 즐길 생각이다. 친구들 만나서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끊겨서 기본적인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엄지성은 좋은 활약으로 광주FC 출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음으로는 뜨거운 응원을 이어갈 생각이다.

엄지성은 "광주FC 선수들을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여전히 내 팀 같다. 영국에 있으면서 계속 광주 결과 찾아보고 경기 보면서 응원했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광주FC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